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에너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거인인 티탄 족에 속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최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불'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는 올림푸스의 신들과 티탄 족이 싸울 때 제우스를 도와서 큰 공을 세웠다. 그 대가로 그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인간을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다. 일을 거들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다른 동물들에게 모든 능력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을 뿐, 사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독수리 같이 날카로운 발톱도,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도 없으며, 다른 짐승들처럼 몸을 가릴 털가죽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그를 찬양하여 이러한 시를 남겼다.

티탄이여!
인간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신들이 함부로 능멸하지 못하게 했던
불멸의 눈을 가진 이여!
그 연민의 보상은 무엇이었던가!
침묵의 격한 괴로움, 바위, 독수리, 그리고 쇠사슬
그것은 굶힐 줄 모르는 자가 받는 괴로움의 전부일 뿐
보이지 않는 번민, 숨 막힐 듯 슬픈 상념
그대, 신으로서의 죄목은
인간에게 애정을 가졌던 일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건네 준 지식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줄여주고
인간을 자신의 힘으로 강화시킨 일이었다.

분명히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을 제공하였다. 그것이 진화하여 오늘날의 첨단 과학으로 진화하였는지도 모른다. 그가 전해준 불씨가 점점 크게 짐화되어 마침내 원자력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인이 영위하는 삶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인간에게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정신력과 도덕력을 동시에 전해주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크로스비는 그의 최근 저서 '태양의 아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은 '지식'

프로메테우스는 이러한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회향나무 가지 하나를 들고 하늘에 올라가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던 것이다. 사실 그가 인간에 준 것은 불뿐 아니라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추위를 이겨내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의 선물을 일괄해서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



글 **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들'에서 인간은 애초부터 태양의 아이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태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매커니즘 뒤에는 '태양의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수화물은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태우는 산소 역시 광합성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역사의 기록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인류 문명사는 태양 에너지를 향한 인간의 욕심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후기 산업사회가 열리는 과정이 모두 태양 에너지를 향한 인류 욕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은 태양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그 첫걸음은 다른 생명체에 잠자던 태양 에너지를 불러내는 법, 이른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다른 동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고 그들을 잡아먹으며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진화의 방향도 정해졌다. 또한 날 음식을 소화하는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뇌를 더 발달시킬 수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한 것은 역시 '불'이라는 이름의 지식이었다.

크로스비, "태양을 향한 욕망부터 절제" 경고

그러나 오늘날 끝없이 진화하는 지식과 무한대로 확장되는 욕심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실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령 화석원료를 대신해서 인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원자력은 방사능 사고를 잇달아 불러왔다. 결국 태양 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흉내 낸 핵융합 에너지까지 손을 댔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인류의 미래가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고 새로운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는 "우선 태양을 향한 욕망부터 절제하라"고 경고한다. 물론 우리는 당장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독증 환자처럼 허겁지겁 에너지를 탐닉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할 때까지라도 중독증을 가라앉히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태양의 아이들인 우리 인류는 에너지 활용의 정점에 선 채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증기에는 열뿐만 아니라 미는 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와트처럼 말이다. 하지만 정점 근처를 그저 어정거릴 뿐이라면 인구 폭발 뒤에는 인구 격감이 따른다는 법칙이 펼쳐지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어떤 유형의 중독증을 갑자기 치유하는 데에는 반드시 금단 증세가 수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치밀한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가 준 선물 중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끝없이 증폭하는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이다. 더구나 오늘날 이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원인이 이러한 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는 슈마허는 그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무엇보다 생산양식의 전환을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내용으로서의 경제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어 버렸다. 무한한 성장은 이 유한한 세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대한 스승들이 그동안 언급해왔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명백하다. 그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하나의 중독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경제를 삶의 내용으로 하고 반성되지 않은 삶을 그 형식으로 할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다. 삶의 양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태양의 아이들로서 본분을 지키고 프로메테우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 우리는 이 중독증에서 어느 정도 헤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D**